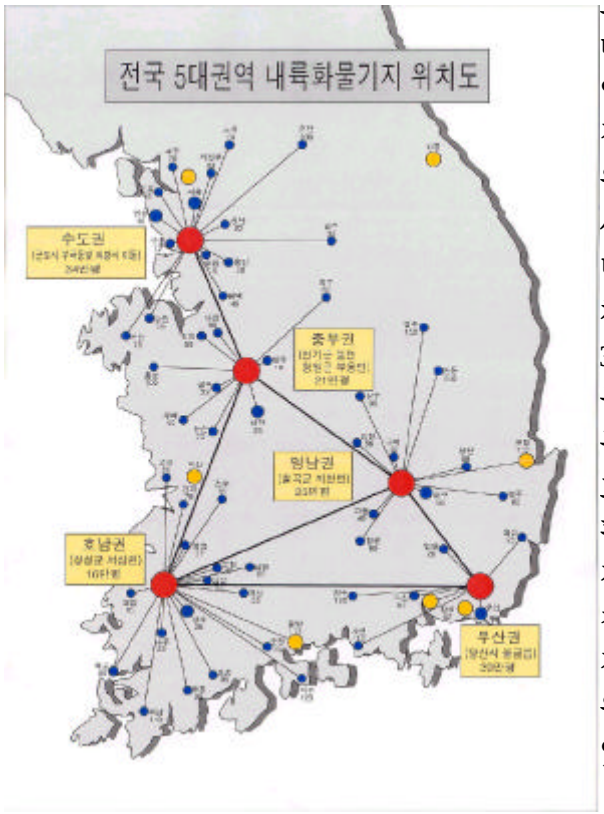
호남 컨테이너화물 34만TEU 처리

건교부, 3035억원 투입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9월 착공

건설교통부는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6월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인 호남복합물류㈜는 토지매입을 거쳐 9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대에 1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것으로 총 303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진입도로, 철도, 상수도 등 기간시설은 정부에서 10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고 나머지 1988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내륙화물기지에는 화물취급장 4채(8000평), 배송센터 10채(6만평), 컨테이너작업장 2채(3000평), 컨테이너장치장 3만평, 주유소, 차량정비소 등이 지어지며 연간 일반화물 486만톤, 컨테이너화물 3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호남권 내륙화물기지는 수도권(경기 군포·의왕 34만평), 부산권(경남 양산 39만평)에 이어 3번째로 건설되는 것으로 향후 중부권(충북 연기군 21만평), 영남권(경북 칠곡군 25만평)에도 추가 건설된다.

건교부는 호남권 내륙화물기지가 완공되면 연간 1217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와 6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02>